

다산포럼



이기영 호서대 명예교수

한국의 정치는 분단으로 인한 이념 싸움으로 후진적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어왔다. 이 때문에 선거 때는 결국 양자 대결 구도가 되고 후보 간의 극단적 악마화 공적으로 국민들도 동서로 양분돼 전임 대통령을 죽임으로 내몰거나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야만적 정치 행위로 현대사가 절절되었다.

이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선진화시켜야만 남미의 브라질 같은 추락을 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독일식 다당제를 검토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에 패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우리나라처럼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던 독일은 1950년대 아테나워 총리 이후 연정을 통해 라인강의 경제 기적과 통일도 이뤄냈다. 더구나 초동 저학년부터 시작된 체계적인 정치 교육으로 나치와 같은 극우 파시즘을 차단해 주변국들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유럽을 하나의 공동체인 EU로 통합해 이젠 정치·경제·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다.

우리도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겨우 0.7% 우위가 눈 공행상으로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사자 우익식 정치 구조를 끝내고 다당제 연정으로 교체해야만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정치적 안정으로 독일처럼 통일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초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 강단에 선 몇 달 뒤 갑자기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의 통일이 우연히 동독의 오보로 일어났다

청춘 특독



이나경 동신대 식품영양학과 3학년

스물한 살에 대학에 입학했던 나는 어느덧 스물세 살, 대학교 3학년이 되었다. 향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보통 이 시기를 '사망년' (死亡年)이라고 표현한다. 취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온갖 스펙을 쌓아내고 고등스러워 사망(死亡)할 것 같다는 대학교 3학년 학생의 심정을 비유한 신조어다. 이젠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취업의 문턱 앞에서 있는 '취준생' (취업준비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아직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 달력 겹도 나고 막막한 마음뿐이다.

3학년이 되니 강의실 공기마저 달라진 것 같다. 공부 보단 놀기를 좋아했던 동기도 취업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고 시험 기간이 되면 묘한 긴장감이 찾아온다. 늘 기다리고 기다렸던 방학마저 이젠 설레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진로,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기업체로 현장 실습을 나가 실무 경험을 쌓고 1년에 한 번 있

기고



양관수 소설가

어떤 고교 교감께서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생들에게 대입 눈술을 지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남녀공학인데 2학년들이었다. 수업은 학교 자료실에서 하는데 교실 한 칸이 강의실이고 다섯 칸쯤 자료실에 책이 가득 들여져 있었다. 수강생은 열다섯 명인데 여학생이 열, 남학생이 다섯 명이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 숫자가 더 적었다. 책 읽고 토론하고 글 쓰는 데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보다 열성인 듯하다. 그 차이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벌어진다.

학생들은 동성끼리 앉기도 혼성으로 앉기도 했다. 그런 애틀 사이에서 몸 장난은 늘 일어났다. 동성끼리 앉았건 이성끼리 앉았건 수시로 벌어졌다. 그중 특이한 건 여자가 남자애를 자주 때리는 것이다. 여자에 가 손바닥을 짹 퍼서 남자애 등쪽이나 어깨쪽지를 찔작 소리 나게 갈라냈다. 소름이 끼치게 아플 것 같았다. 맞은 남자애가 얼마나 아플지 안스럽기까지 했다. 연타로 세 번까지 때리기도 했다. 남자애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그러는 게 아니었다. 두셋이 말장난하다 그냥 장난처럼 딱 딱 때렸다. 더 놀라운 건 남자애들의 한결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민 화합의 '다당제 연정'으로

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독일 국민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았던 많은 노력이 모여 생긴 결과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친 동독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크리스티안 휘러 목사가 이끈 원외 집회가 동독을 무너뜨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었지만, 공산 독재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 폴란드 출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오랜 노력과 함께 소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 등 다양한 환경이 조성돼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한 독일 다수당의 연정으로 안정화된 정치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다고 본다. 특히 자민당 당수 한스 디트리히 겐서는 겨우 5-10% 지지를 받으면서도 20년 이상을 내무·외무 장관을 지내면서 독일 통일의 주된 역할을 했다. 사회당과 기민당, 자민당의 연정으로 빌리 브란트가 주장한 동방정책을 실행에 옮긴 그는 특히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하자 정세 변화를 긴장 완화의 기회로 삼본 활용했다. 연정은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더 큰 장점을 가진 제도도 독일에선 이미 오래 전에 성공해 이젠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와 경제 및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말 독일 사민당 대표 올라프 슐츠 의원이 '무티'(엄마) 앙겔라 메르켈에 이어 독일 전후 아홉 번째 총리로 취임했다. 16년간 임기를 마친 메르켈 전 총리가 방문자석으로 들어오자 연방회의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로 예의를 표했다. 슐츠 총리는 작년 9월 독일 선거에서 사민당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후 녹색당·자유민주당과 함께 신호동(사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를 구성해 총리로 취임했다. 슐츠 총리는 내무장관과 외무장관에 처음으로 여성을 내정했고, 국방장관도 여성에게 맡겼으며 남성과 여성 숫자를 각각 여덟 명씩 동수로 정했다. 그는 그

동안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맡아 국민들에게 '메르켈의 후계자'라는 말을 들어왔다. 2005년 11월 독일 최초 여성 총리로 선출된 메르켈 전 총리는 임기말 지지율이 80%를 기록하며 총리 자리에서 내려왔다.

연정은 정권교체가 돼도 연립을 통해 전 정부의 정책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소수와 정당이 정권에 참여해 소수의 목소리도 국정에 반영되며 많은 학습을 유도해 경륜 있는 정치인을 양성해 내는 효과도 있다. 이번 올라프 슐츠 내각이 25번째 내각인데 그간 모든 내각이 100% 연정이었다. 1957년 기민·기사당은 과반(519석 중 270석)의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자민당(17석)과 연정했다. 대연정의 경우엔 국민의 80%의 지지를 받는 집권당이 탄생하고 정권교체가 돼도 연립을 통해 전 정부의 정책들이 이어진다. 탈원전·모병제는 녹색당의 공약이었는데 기민당·사민당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독일도 전쟁(戰戰)까지는 권력 독점과 심각한 분열·갈등이라는 양자택일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엔 민심을 따른 연동형 비례제에 기반한 연립정치를 통해 국정의 안정성·전문성·지속성을 모두 달성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 주었다.

이번 선거에 다당제를 주장하던 안 후보가 갑자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및 합당 선언으로 민주당이 제안했던 독일식 비례대표 당원 명부에 의한 다당제 연정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이 바로 정치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본다. 지난 선거에서 다당제를 제안한 김영호 전 산자부 장관과 '독일의 총리들'이란 저서를 집필해 독일식 다당제 연정을 소개했던 김황식 전 총리 등 양 진영 사회의 양심적 어른들이 모여 함께 개혁을 촉구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치 초년생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윤 대통령도 연정의 화합 정치를 통해 빌리 브란트처럼 역사에 남을, 국민 화합을 이룬, 더 나아가 독일의 초석을 세운 최고의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학교 '사망년'의 삶

는 국가고시 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 준비에 방학을 다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적으려면 봉사활동과 교내활동, 대외활동 등도 틈틈이 신경 써야 한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내 몸은 한 개뿐인지 원망스럽기도 하다. 남들보단 뒤처지진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자꾸만 조바심이 나고 핑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시달리고 있는 요즘이다.

1~2학년 때와 달리 전공이 심화되면서 공부는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들어야 할 강의는 많고 매주 쏟아지는 과제들을 밤새 해줘야 한다. 학업 이외에도 청소년 멘토링 활동, 스터디 모임, 봉사활동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도착하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든 나머지 침대에 바로 쓰러져 잠들곤 한다. 그리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일들(강의 듣기, 과제 등)을 해야 한다.

'자유'보단 '스펙'을 쌓는 데에 더 치중했고 늘 자신에게 채워질까하며 남들 놀 때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늘 쉬지 않고 각종 활동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대회에 나가 상도 받고 포트폴리오를 채우며 성과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왔지만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공허함이 찾아온다. '그때 좀 더 놀아보고 자유를 만끽해 볼 걸'이라는 후회도 남는다.

외설인가 예술인가

같은 태도였다. 화를 내지 않았다.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듯했다. 맞은 애가 때린 애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정도가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었다.

여기에서 필자는 또 느꼈다. 남성 호르몬이 열성이라는 걸. 남성 우월주의는 인류사의 오류라는 걸. 가부장제는 인류사의 오점이라는 걸. 남자에게 손바닥으로 때린 여자애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잡이지 어디이겠는가. 여자애들은 엄마가 아빠를 때리는 걸 보고 의식이 아닌 무의식 속에 잘 기억했으리라. 바꿔치기 견디는 남자애들도 집에서 본 현상들을 무의식에 저장했을 것이다. 견디는 아빠의 모습을. 남성 호르몬의 몸가짐을. 인간의 DNA에 담긴 모계사회의 무의식적 발현이리라.

그러던 애들이 중간 쉬는 시간에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라졌다. 책들이 진열된 높고 기다란 진열장 숲으로 스며든 것이다. 필자가 뻗뻗해진 다리를 풀어줄 겸 진열장 새를 걸었다. 문학 코너로 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찾아볼 셈이었다. 필자가 진열장 숲으로 들어갔다. 전등이 안 켜져 어두우나 사물은 다 파악할 정도였다. 꽃힌 책의 책등에 새겨진 글자를 읽었으니깐.

애들은 진열장 틈새에 앉거나 누워있었다. 강아지들이 한데 어울려 꼬물꼬물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서로 장난하고 꺾꺾거리다가 때리는 게 유치원 애들 웅성거리는 거와 흡사했다. 필자는 문학 코너로 다가갔다. '채식주의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있을 만한 곳을 두세 번 훑어보아도 허사였다. 눈높이에서 다른 책을 발견했다. 밀란 쿤데라의 책들이었다. '노립' '농담' '잠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나란히 보였다. 좋은

하지만 내가 만약 스펙을 쌓지 않고 자유만 만끽했다면? 그것 또한 후회로 남지 않았을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늘 후회는 남기 마련이다. 애초에 '옳은 선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멋진 미래를 꿈꾸며 대학에 진학했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현실의 이면과 마주하게 된 우리는 전공에 대한 회의감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마음은 불안해지고 무력감에 빠진다.

현재 3학년은 코로나 학번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대학교 낭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기에, 어쩌면 지금 '사망년'의 시기가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대학에 진학하면 끝일 것 같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우리 늘 끝도 없이 도전해야 한다.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그 선택엔 대가가 따르거나 부담이 더 커지고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돌이켜 보면 그 속에 배움과 경험이 존재하고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고 무섭기도 하지만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기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소중하고 '내일'이라는 희망이 존재한다. 결코 자신의 선택에 무의미한 일은 없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하나씩 천천히 나아가기를 바란다.

책들이라 습관적으로 손이 갔다. 필자가 책 세 권을 두 손으로 잡아 뺐다.

책 빼면 틈새에 맞으면 통로가 드러났다. 엉뚱한 상황이 보였다. 한 커플이 껴안고 있었다. 숨어서 키스하다 필자 눈에 띈 것이다. 남학생은 몸가짐을 다잡으며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을 몰랐다. 여학생은 당했다. 필자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필자가 뜻밖의 상황에 놀랐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우성이라는 걸 느낀 필자는 빙그레 웃으며 빼낸 책들을 제자리에 그대로 꽂았다. 그들이 도로 책에 가려졌다. 필자가 발걸음을 죽이며 그 자리를 뚫다. 수업이 끝나고 필자가 도서관 선생에게 말했다.

"소설 '채식주의자'가 안 보여요." "야하다고 선생님들이 입고하는 걸 반대해요." "잠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보이던데요?"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책 숲 사이에서 포옹과 키스를 하다 필자랑 눈이 마주친 두 학생이 떠오른다. 필자는 그들의 잘잘못을 되짚으려는 게 아니다. 여자애와 남자애. 열성과 우성을 되새겨 보려는 것이다. 한 가지를 더 짚자면 부도덕하고 야한 개념이다. 그게 외설일까 예술은 아닐까. 혼란스럽다.

밀란 쿤데라 소설들은 도덕적인가? 안 야한가? '채식주의자'가 비도덕적이고 야한가? 아니면 서양 문학은 우성이고 한국 문학은 열성인가. 대한민국에는 드러내 놓고 말하기 곤란한 어떤 열성-집단 무의식이 굳게 버티는가. 책들 새에 스며들어서 키스한 두 학생이 그렇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社說

정상화된 국회 '숨넘어가는' 민생부터 챙겨야

난항을 거듭하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어제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회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을 약속하면 국회의장 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을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표결 결과 총 275표 중 255표를 얻어 당선된 김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의정직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 몫 부의장에는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 몫 부의장에는 정진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로써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된 후 36일 만에 국회는 의정단 공백 사태가 해소되며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닥치는 미증유의 복합 경제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주가는 폭락하고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경기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는 한 달 이상 원 구성조차 못한 채 개점휴업을 이어왔고, 여야 정치권은 당내 권력 투쟁도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다.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과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인 대로 "국민들은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현재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밥값 지원' 법안, 쌀값 안정 대책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 있다. 여야는 협치의 정신으로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매듭짓고 국회를 본격 가동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고립 가족' 비극 다시 없게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웃은 물론 친인척과도 단절된 삶을 사는 이른바 '고립된 가족'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유나(10) 양과 부모에 대한 장례식이 없었게 처리됐다. 조 양 부모는 지난달 17일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사라진 뒤 29일 완도 송곡항 인근 바다에서 조 양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경제적 곤란뿐 아니라 조 양 모친의 공황장애 등 여러 사유가 겹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이들이 철저히 게 고립 생활을 해왔다는 점이다. 경찰이 가족 세 명의 마지막 한 달간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발신 전화는 한 명당 다섯 통 안팎이었다. 이마저도 은행과 완도 펜션을 제외하면 일가족 세 명끼리 주고받은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 과정에서 "가족끼리만 어울려 산 것 같다. 형제자매 등 가까운

사람과는 연을 끊다시피 해 전화도 왕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이 나왔다. 장례 기간 유가족은 물론 애도하는 조문객도 없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위험 신호를 보내는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참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통계청의 '2021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가운데 위기 상황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사회적 고립도)이 34.1%로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만큼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인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1인 가구, 독거노인 등 주로 개인에 집중해 온 복지망을 가족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아울러 아동의 인권과 생명을 부로 한 탐문조사 과정에서 "가족끼리만 어울려 산 것 같다. 형제자매 등 가까운

無等鼓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해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김 여사가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뚜렷한 존재감을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가 순방 기간 동안 입었던 옷과 액세서리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반면에 김 여사의 행보가 그리 편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경력 논란이 일자 "영부인이야

순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 '정외대 속 야당' 역할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동지적 관계였던 이희호 여사는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여성부 출범과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등에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친화력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여사는 1972년생으로 올해 49세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연소 영부인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

영부인의 품격

실하겠"과 했던 약속을 어릴적 넘어가려고 하고 있던 것이다. 경찰의 피의자 심문 조사 불응 등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점도 좋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부인은 대통령과 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 그만 큼 상징성이 크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김소함'을 실천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는 소외계층을 챙기는 활발한 봉사활동과 함께 민심의

업가 출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과거 내조형에서 벗어난 영부인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챙기는 진정성도 요구된다. 영부인의 존재감은 국민적 공감에 빛나고, 영부인의 품격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tuim@

Table with 4 columns: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